



환경부-금융위원회, 탄소중립 이끄는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 환경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금융연수원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부 기관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모은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5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금융연수원과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녹색금융의 역할에 주목하고,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해 녹색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운영,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금융권에 활용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 기반시설 및 자원 교류, △홍보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해(2024년) 12월에 제정된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따라 자금의 사용 목적이 녹색 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전문인력을 확대한다.

* 2024년 12월 12일에 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은「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했으며, 해당 지침에는 녹색 경제활동(녹색여신) 판단기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됨

협약기관들은 기후·환경 및 금융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고, 녹색금융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부터 실제 금융권 현장 적용 실무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1차 양성 교육은 7월 7일부터 11일까지 한국금융연수원(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진행되며, 교육의 대상은 여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포기관 종사자다. 2차 양성 교육은 11월에 개설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녹색금융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금융 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핵심”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공신력 있는 녹색금융 생태계를 조성하여 녹색투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권의 기후금융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면서, “이를 촉매제로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녹색금융 공급 확대 및 녹색금융 상품 개발 등 기후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금융권과 산업계의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에 아낌없이 지원을 보낼 계획”이라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한 전문인력이 향후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쏠금융권과 산업현장에서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가 원활하게 적용됨으로써 국가 환경개선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준수 금융연수원장은 “이번 협약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녹색금융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금융연수원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교육 개요
2. 협약식 개요. 끝.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민	(044-201-6678)
		담당자	사무관	이희선	(044-201-6690)
<공동>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김수아	(02-2100-2864)
<공동>	금융감독원 ESG시스템리스크분석팀	책임자	국 장	이 진	(02-3145-8170)
		담당자	팀 장	이상진	(02-3145-8190)
<공동>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녹색 투자지원실	책임자	실 장	조기숙	(02-2284-1960)
		담당자	책임연구원	홍은아	(02-2284-1974)
<공동>	한국금융연수원	책임자	부 장	문영성	(02-3700-1511)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배경 및 목적**

- **(배경)** 여신(대출) 등 금융상품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부합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필요
- **(목적)**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통한 금융권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관련 이해도 제고 및 산업·금융계 녹색금융 확산

□ **추진 내용**

- **(교육대상)** 금융회사 및 환경 관련기관 경력 1년 이상 재직자
※ '25년은 금융기관 및 외부검토기관 대상 연 200명 규모
- **(교육내용)** 지속가능금융의 이해, 글로벌 분류체계 동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의 이해,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실무 등
- **(교육기간)** 연 2회 실시

기수	일시	접수기간	교육시간	계획인원	비고
1기	7월	5월	5일 28시간	100명	7/7~7/11, 금융연수원
2기	11월	10월	5일 28시간	100명	11월 중, 금융연수원

- **(합격기준)** 총 교육시간의 80% 출석 및 시험 통과

< '25년 상반기 양성교육 프로그램 >

- **(교육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
- **(교육대상)** 환경·금융기관 경력 1년 이상 재직자
※ '25년은 금융기관 및 외부검토기관 대상 연 200명 규모
- **(일시·장소)** '25. 7. 7(월) ~ '25. 7. 11(금), 금융연수원
- **(강의시간)**

일자	과목명
7.7.(월)	지속가능금융의 이해, 글로벌 분류체계 동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개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1(온실가스 감축)
7.8.(화)	녹색분류체계 온실가스 인정기준 산정방법 I,II(제품 벤치마크, 온실가스 배출량),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2, 3(기후변화 적응, 생물다양성 보전)
7.9.(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4, 5, 6 (순환경제로의 전환, 물의지속가능한 보전, 오염방지 및 관리)
7.10.(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사례 I,II,III(경제활동, 배제·보호기준, 녹색여신 등) 녹색분류체계 외부검토보고서 작성, 금융회사의 적합성판단 실무
7.11.(금)	전문인력 양성과정 자격검정 시험

□ 추진 배경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부합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판단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녹색위장행위 방지 및 공신력 있는 녹색금융 생태계 조성

□ 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 '25.5.23.(금) 8:40~9:00,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서울 중구 명동)
- (협약기관) 환경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금융연수원
 - * (참석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준수 한국금융연수원장, 김영기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직무대행
- (협약 주요내용) 녹색금융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의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 시행
- ◆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획, 정책적 지원 및 제도화 추진
- ◆ 녹색금융 교육과정 개발, 운영 및 결과 관리
- ◆ 교육 인프라 지원·홍보, 금융기관과의 연계·협력

□ 세부 일정(안)

시간		내 용	비 고
08:30-08:40	10분	○ 환담	
08:40-09:00	4분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업무협약 취지 안내	
	5분	○ 인사말씀	참석자
	5분	○ 협약서 서명	참석자
	6분	○ 기념 촬영 및 폐회	참석자